

마루오야마 산 이야기

표지

중앙 상단

만화

히라도 기리시탄

마루오야마 산

이야기

루이스 드 알메이다

하단 좌측

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

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

하단 좌측

글 다나카 요시타카

그림 요네쿠라 유지

최하단 좌측

발행 히라도시 문화교류과 2019년 7월 1일

PAGE 1

No. 1

제 이름은 루이스 드 알메이다입니다.

1561년에 다쿠시마, 이키쓰키, 시시, 이라 취락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취락민들이 마련해 준 배로 또 다른 기리시탄의 취락인 가스가로 향했습니다.

No. 2

가스가 취락의 기리시탄들은 마루오야마라는 이름의 언덕 위에 묘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. 커다란 십자가는 취락민들의 굳건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.

취락민들은 우리들의 방문을 반기며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.

No. 3

저는 취락을 대표하는 사키치라고 합니다. 긴 여정에 많이 지치셨을 테지요.

No. 4

취락민 중 한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우리들은 돌아가신 분을 묻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.

뭐든 저희가 돕겠습니다. 그 분 곁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세요.

하단 우측

루이스 드 알메이다의 서한에서 발췌

PAGE 2

No. 2

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. 당신의 어머님께서 천국으로 편안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.

No. 4

주님, 그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. 영원한 빛을 그녀에게—

No. 5

—비주소서.

No. 6

주님, 그녀의 영혼을 거두어주소서. 그녀를 당신 곁으로 인도주소서.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소서. 아멘.

PAGE 3

No. 1

엄마, 지금까지

No. 2

감사했어요. 이젠 천국에 가셨지만, 저는 언제나 엄마의 아들이에요.

No. 3

여행길에 만든 목주입니다.

No. 4

이걸 산노스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. 이 목주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.

No. 5

저는 루이스 드 알메이다입니다.

가스가에서는 바다와 육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곳의 주민들은 독실하면서도 선량합니다.

하단 좌측

루이스 드 알메이다의 서한에서 발췌